

경기 불황에도 지역 프랜차이즈 가맹점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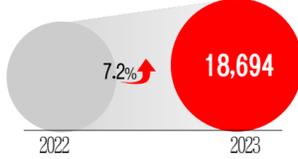
● 통계청 '2023년 프랜차이즈 조사'

1년 새 광주 597개·전남 659개 ↑ ...종사자 6만명 육박
전국 가맹점 30만개 돌파...편의점·한식 순으로 비중 높아

경기 불황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30만개를 넘어선 가운데 광주·전남지역도 1년 전보다 가맹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프랜차이즈 가맹

점수는 8천967개로 2022년(8천370개) 대비 7.13% (597개) 증가했다. 2023년 종사자수는 2만9천899명으로 1년 전(2만7천198명) 대비 9.93% 늘었다. 매출액은 3조470억원으로 1년 전(2조7천960억 원) 대비 8.97%가 늘었고 인구 1만명당 가맹점수

광주·전남 프랜차이즈 가맹점 현황 [단위:개 /자료 통계청]



는 61.3개로 같은 기간(57.0개) 대비 증가했다. 2023년 전남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는 9천727개로 1년 전(9천68개) 대비 7.26% (59개) 늘어났다. 종사자수는 2만8천789명으로 2022년(2만6천65명) 대비 7.84% 증가했다.

매출액은 3조2천450억원으로 1년 전(2조9천240억원)보다 10.97% 늘었고 인구 1만명당 가맹점수는 55.0개로 2022년(51.2개) 대비 많아졌다. 전국의 2023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도 30만천개로 전년(28만6천개)보다 5.2% 늘었다. 가맹점 수가 30만개를 넘어선 것은 2013년 관련 통계 이후 처음이다. 가맹점 종류별로는 편의점이 5만5천개(18.2%)로 가장 많았고 한식(5만개·16.6%), 커피·비알코올음료(3만2천개·10.7%)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외국음식(13.6%), 문구점(11.6%), 한식(10.3%) 등 대부분 업종에서 프랜차이즈가 늘었다. 가맹점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는 101만2천명으

로 전년보다 7.4% 늘었고 편의점 종사자 수가 21만1천명(20.9%)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식(16만9천명·16.7%), 커피·비알코올음료(12만9천명·12.7%) 등 순이었다. 또한, 전체 종사자 중 여성이 60.4%, 남성이 39.6%를 차지했다. 프랜차이즈 매장 종사자 수가 크게 늘면서 지난해 총매출액은 108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4% 늘었다. 매출액 비중은 편의점(25.6%)이 가장 컸고 한식(16.2%), 치킨전문점(7.5%)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가맹점당 매출액은 1년 전과 비교해 생맥주·기타주점(14.1%), 가정용 세탁(11.7%), 두발 미용(9.9%) 등에서 매출이 많이 늘었다. /연태호 기자

GGM, 조선이공대·광주전자공고에 캐스퍼 2대 기증

자동차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 위한 교육 실습용 교보재 활용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자동차 관련 학과가 있는 광주지역 대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실습용 차량 2대를 기증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GGM은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 자동차산업 발전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이들 학교의 교

육 실습용 차량 지원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24일 조선이공대학교와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에 캐스퍼 1대씩을 전달했다. 조선이공대와 광주전자공고는 그동안 GGM과 손잡고 산학인턴을 운영중이며 자동차 전문가 육성을 위해 힘써왔으나 생생한 체험을 위한 실습용 자동차가 여유롭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조선이공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민중 GGM 경영지원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조순계 조선이공대 총장, 차장단, 자동차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어 오후에 광주전자공고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석봉 GGM 생산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위한복 광주전자공고 교장과

자동차와 교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 학교에 전달된 캐스퍼는 자동차 공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용 교보재로 활용되고 각종 자동차 관련 기능경진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실습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임태만 기자



탐라레저그룹은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의 수익을 보장합니다.

(주)탐라레저그룹에서는 프리실버타운사업에 동참할 소액 단기 출자자를 모집합니다.

(3,000만원 6개월 출자시 ▶ 540만원+α 지급)



프리실버타운 제주 애월



프리실버타운 아산 도고

황금출자 삼위일체

01 안정성
콘도 객실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

02 수익성
콘도, 골프 회원권, 분양으로 3% 이상 고수익 보장

03 환금성
콘도 리모델링 준공후 은행권 담보 대출로 100% 원금 반환

탐라레저그룹 Tamra Leisure Group

- ◇ 탐라레저그룹 출자회원에 대한 혜택 ◇
- 매월 90만원씩 출자회원 지정계좌로 현금 입금해 드립니다.
 - 탐라콘도, 골프 10년 이용권을 발급해 드립니다.
 - 애니밴드라이프 상호회원 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실버타운 웰니스파크 우선 입주 청약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도고콘도 객실에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드립니다. (원금 3,000만원에 대한 4,500만원 1순위 설정 등기)

◇ 에스프로 방식 ◇

출자금 3,000만원은 박 두 영 법무사 사무소 계좌번호 농협 351-1332-8888-63(예금주 박두영)으로 입금하시면, 도고콘도 객실에 채권최고액 4,500만원 1순위 근저당 설정등기 후에 (주)탐라레저그룹에서 출금하여 도고콘도 리모델링 공사비로 사용합니다. (출자 수익금에 대한 세액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며, 등기권리증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등기우편으로 직접 발송해 드립니다.)

출자문의 **1533-1494**

1인 9,000만원 출자 가능

한전, 연공서열 직급 명칭·호칭 손질

숫자 표시 직급에서 직위·직무 중심 개편...수평 조직 문화 구현

한국전력이 창사 이래 계속 사용해 온 연공서열 성격의 직급 명칭과 호칭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에 따라 직위와 역량 중심의 수평적 조직문화 구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5일 한전에 따르면 그동안 한전은 위계적인 성격의 '숫자 표시 직급(1직급~6직급)'을 사용해 왔으나, 직무 중심의 인적자원(HR)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직급 명칭을 직위와 직무 중심으로 개편했다. 기존 4(7) 직급 4(나) 직급 5직급 6직급은 각각 선임-일반 현장-기술-전문-사무으로 변경된다. 또한, 기존에는 직원 호칭 상향(주임→대리→과장)에 소요되는 기간이 직급에 따라 상이해 조직 내 보이지 않는 위계질서가 존재했으나 호칭 체계 개선을 통해 호칭 부여 기준을 일반직(기존 4직급) 대졸 입사 수준으로 통일해 직급 간 불필요한 차이를 제거했다. 더불어 수직적 조직문화 타파를 위해 사내 시스템에서 동료직원 검색 시 표시되는 정보를 기존의 불필요한 숫자 표시 직급 표기 대신, 실질

적으로 협업에 필요한 직군(무슨 일을 하는지)과 호칭(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표기로 대체했다. 이외에도 한전은 직원 간 직급, 연공서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요소를 제거, '직무'와 '역량' 중심의 수평적 조직을 구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지난 2021년에는 공공기관 최초로 최상위직급인 1(가)와 1(나) 직급을 통합, 기존의 익숙한 관행에서 탈피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수평적 조직으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 2022년부터는 수행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 직무의 가치를 반영한 '직무경력 Index(수행 직무에 따라 차등 부여한 가중치를 반영해 산출된 근무 경력점수)'를 승진 심사 시 도입, 수십 년 동안 이어졌던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 문화를 탈피했다. 한전은 "공기업 특유의 딱딱하고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벗어던지고 직무 기반의 유연하고 수평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태만 기자

광주디자인진흥원, 도매시장 브랜드 '풍월' 개발

시·디자인진흥원·중도매인 협업

고 지역 농수산물 우수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같은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바탕으로 디자인 전략은 색채와 별, 달, 바람 등의 자연 친화적 그래픽 요소를 활용에 신선하고 활기찬 시장의 모습을 담았다. 또한, '풍월' BI를 활용해 ▲내외부 사인물 ▲홍보마케팅 용품 ▲공용 포장재 ▲앞치마 등 소모품 등도 개발을 마쳤다. /연태호 기자

광주를 대표하는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새로운 브랜드 '풍월'이 만들어져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25일 "최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연합회장 등 중도매인, 상인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브랜드 '풍월' 개발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공동 브랜드 '풍월'은 '풍암'과 '매월'의 합성어로 '전라도 바람이 키운 우리 농수산물로 활기찬 새벽을 여는 서부시장'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서부시장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약속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